

“30년간 멈춰있던 교실, 스마트 농업으로 다시 숨 쉬다”

강진 초등학교 영파분교, 전남 YOUNG농 스마트단지로 재탄생 폐교부지 활용, 청년농 창업·정착 이끄는 미래농업 거점 구축 마련

30여 년간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던 폐교부지가 첨단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다시 숨 쉬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읍 영파리 565번지에 위치한 옛 강진초등학교 영파분교 부지를 '전남 YOUNG농(영농) 스마트단지'로 조성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임대단지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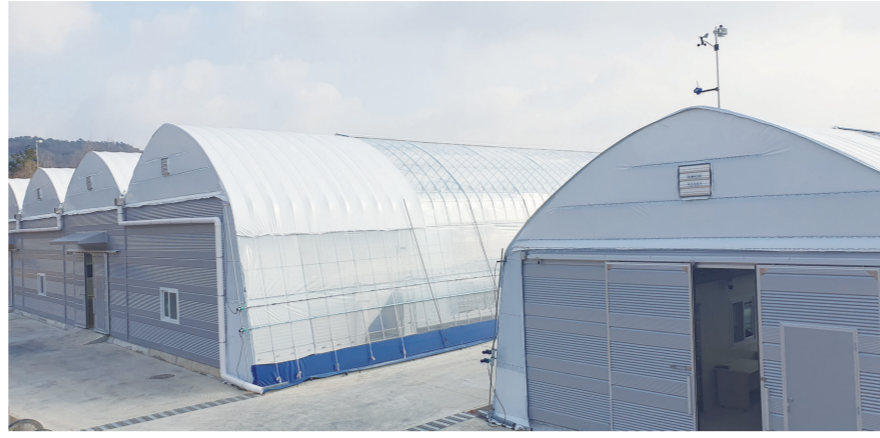
해당 부지는 1991년 폐교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왔으나, 강진군이 지역 유휴자산을 미래농업 기반으로 재생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전라남도 영농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됐다.

전남 YOUNG농 스마트단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청년농 스마트팜 거점단지 9,250㎡ 부지에 스마트 온실 3개동(4,885㎡)과 리빙랩 등 관련 기반시설을 갖췄다.

또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ICT), 자동관수·양액 시스템 등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집약시켜 원예특용작물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토마토 재배용 4연동 비닐온실 1동 ▲딸기 재배용 2연동 비닐온실 2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 원에 3년간 스마트팜 영농시설을 임대, 과격적인 임대료로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절감시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모집에서 토마토 재배 농가 1명과 딸기 재배 농가 2명 등 총 3명의 청년농이 입주자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 시험가동과 함께 작물 재배 준비, 스마트팜 운영 교육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이다.

강진군은 이번 영농스마트단지 조성을 계기로 청년농 유입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지역 농가로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문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청년농과 지역 농업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 재난주택 신축·빈집정비 지원 강화 업무협약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설계, 감리비 50% 감면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설계와 감리 및 검토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는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어 그동안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시지역건축사회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

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50% 감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100여 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율과 추진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에는 관내 20여 명의 건축사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피해 주민과 빈집정비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박종호 나주시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빈집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시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50억 원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1분기 신청 접수 시작 1분기 신청 2월 2~3일, 무작위 추첨 방식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금융지원 보증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일반보증 16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4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년간 연 5% 이내의 대출이자율 지원한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원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하며, 2026년 1분기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3

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접수 초기 혼잡과 신청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흥군은 23일 '어르신 AI 활용 인생시 쓰기 프로젝트'의 결실로 제작된 시집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장흥군과 순천제일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기억과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다.

장흥군, '어르신 AI 인생시 쓰기' 시집 전달 성료 문학으로 치유하는 '노벨문학도시 장흥' 비전 본격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한 권의 시집으로 제작돼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참여 어르신은 “평생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문학 작품으로 기록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깊은 감동과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AI 활용 모델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문화복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화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은 “대학이 지역과 함께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따뜻한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흥군과의 시·군 동반성장 협력을 강화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문학의 주인공이 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군민 모두가 문학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이경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

곡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기준 확대... 양육 부담 완화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구례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공모 선정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 및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구례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례군은 올해 도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이 어려움을 겪어온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고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구례군에서는 버스 1대를 임차하여 연 8개월 동안만 관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례군은 연중 통

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청년층과 인근 지역 구직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통근버스 운영 외에도 산단 내 환경개선, 기술사 입차료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을 검토 중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있는 건데 말이다.

포근한 이들

우어도 보는 것.

한드서 기억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